

The Impact of Religious Activities on Youth Experiences: A Phenomenological Study of Sunday School Programs in the Korean Catholic Church

Mankeun Yoon¹, Jinok Lee^{2*}

¹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²Institute of Don Bosco Youth Spirituality and Ministr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plores the influence of religious engagement during adolescence, focusing on the role of Sunday School in the Korean Catholic Church and its potential for improvement.

[Contents] This study utilized a phenomenological approach collecting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Participants included adolescents who are currently or previously engaged in Sunday School, along with catechists and young adults affiliated with Diocese A. Giorgi's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analyze the data, which led to the identification of five key themes: "supportive community members," "a welcoming, inclusive space," "peer relationships grounded in faith," "acquisition of essential life skills," and "discovery of faith within an engaging environment."

[Conclusion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unday School activities during adolescence have been shown to play both direct and indirect roles of importance in adolescent life. Second, these activities support not only the transmission of catechetical knowledge but als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holistic development of young people. Consequently, this study indicates the need for church communities to support youth faith formation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diverse activities and experiential learning alongside catechetical instruction, thereby accompanying adolescents on their journey of faith.

[Keywords] Korean Catholic Sunday School, Youth faith activity, Youth, Religious experience of youth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2024.

* **Corresponding author** Jinok Lee (Institute of Don Bosco Youth Spirituality and Ministry)

E-mail : jinokpetralee@gmail.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종교 활동 경험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 가톨릭교회 주일학교 활동에 대한 현상학적 탐색

윤만근¹, 이진옥²

¹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²돈보스코청소년영성사목연구소 선임연구원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청소년 종교 활동 중 하나인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시기에 미치는 종교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종교 활동의 역할과 기능을 탐색하고 주일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A교구에 소속되어 주일학교 활동을 하고 있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 교리교사 그리고 청년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의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 이론화된 주제이다. ‘학생들을 지지하는 공동체 구성원’, ‘환영 받는 장소’, ‘신앙으로 연결되는 또래 관계’, ‘삶에 필요한 기술 습득’ 그리고 ‘즐거는 공간에서 신앙 발견’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시기의 주일학교 활동은 청소년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의 주일학교 활동은 청소년에게 교리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교회 공동체가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며 청소년에게 신앙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그들을 동반하며 다양한 활동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한국 가톨릭 주일학교, 청소년 종교활동, 청소년, 청소년 종교활동의 경험

I. 서론

발달 심리학자 Erickson(1958)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종교 활동은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복잡한 실존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Kim, 2014: 156). 이는 청소년의 영적 성숙도와 종교적 성향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Kim & Lee, 2014: 393-396). 왜냐하면 청소년의 종교적 사회성은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Lee & Jeong, 2017: 121). 이러한 면에서 청소년 시기의 종교 활동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여(Shin, Park, & Kim, 2018: 414), 청소년들이 자신의 존재적 가치나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데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 활동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반해, 종교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다소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0년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가족, 건강, 동성 친구, 일, 여가, 돈의 순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나 이웃은 청소년의 삶에 큰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2020년 조사 결과는 「2008년 청소년 가치관 국제 비교 조사」와 비교할 때 더욱 낮게 나타났다(Oh & Moon, 2020: 79-84). 게다가, 2021년 한국갤럽조사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은 20-30대를 중심으로 탈종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 활동의 주체인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 가톨릭 교회의 주일학교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주일학교에 나타나는 탈종교 현상의 원인으로는 종교적 가치를 약화시키는 현시대의 개인주의나 세속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를 지목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 감소나 감염병 확산 이후 종교 활동에 대한 가치의 변화도 그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흐름에 따른 탈종교 현상은 단지 청소년에게 종교 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 종교적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교회는 종교가 청소년의 관심에서 멀어져가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청소년의 주일학교 활동의 의미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주일학교 중심인 교리교육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데 머물고 있다. 이는 청소년에게 종교 활동 참여를 단순히 권장하기 보다는 종교 활동이 그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면을 보다 체계적인 차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종교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체험이 종교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청소년의 낮은 종교 활동 참여율의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 활동이 청소년의 삶에 주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이루어지는 종교 활동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한국 가톨릭교회의 청소년 종교 활동의 중심인 주일학교에 대한 청소년의 경험이나 그 영향에 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일학교를 통한 청소년의 종교 활동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한국 가톨릭교회 주일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접근을 통하여 한국 가톨릭교회 주일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종교 활동 경험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선택한 현상학적 방법은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경험을 공통적으로 기술하는 연구 방법이다(Creswell & Poth, 201: 111).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통해 발견된 현상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공통적인 자료를 통합하여 청소년 시기의 종교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청소년 종교 활동의 중심인 주일학교 활동에 대한 경험을 다음의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가톨릭교회의 주일학교 활동 경험이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가톨릭교회의 주일학교 활동 경험은 청소년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시기의 주일학교 활동의 중요성

주일학교 활동은 청소년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인격을 개발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Lee & Jeon, 2006: 43-58). 주일학교 활동은 청소년이 신앙에 입문하도록 초대하고,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신앙인으로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Jeoung, 2010: 7863). 주일학교에서 다루는 다양한 활동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영리의 목적이 아닌 복음적 가치에 근간하며 그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이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은 복음을 삶의 기준에 두고 도덕적인 가치를 삶에서 실천할 용기를 얻게 된다(Koo, 2009: 331). 특히, 자발적으로 주일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는다(Koo, 2009: 332).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는 본당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본당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도록 이끌어준다(Di Giosia, 2011: 119). 그들은 주일학교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체험을 통해 이전 세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신앙의 전통을 계승해 나갈 기회를 얻게 된다. 즉,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관계를 통해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Di Giosia, 2011: 119). 특히, 주일학교 활동에서 형성되는 또래집단은 청소년의 신앙적 태도와

관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소년의 신앙심과 신앙 활동에 또래친구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Cho, 2015: 191-192). 이렇듯 주일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과 만남은 청소년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정을 맺으며 하느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사랑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준다(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New Evangelization, 2021: 104). 그러므로 청소년 시기의 주일학교 활동은 청소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 가톨릭교회 주일학교의 역할

한국 가톨릭교회가 지금의 주일학교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 추정할 수 있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1984년 한국 가톨릭교회 설립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한 사목의 발전을 시도하였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의 신앙 교육의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청소년에 대한 당시 보편교회의 흐름을 반영하여 ‘청소년 사목’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교리지식 중심의 주일학교 형태에서 벗어나 청소년 사목이 신앙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사도직 활동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Cho, 2019: 27). 청소년에 대한 이 같은 관심은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집에서 청소년 신앙 교육이 신앙의 기초를 놓아주는 교육,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 성(性)문제를 간과하지 않는 교육, 소명 교육 그리고 연역적 방법을 이용한 교육 등 청소년 신앙교육에 필요한 다섯 가지 원리를 제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CBCK, 2022: 125). 이를 계기로 한국 가톨릭교회는 주일학교의 체계성을 갖추고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주일학교가 일반 학교와 유사한 구성으로 학년별, 학기별로 교리교육을 구성하는 지금의 주일학교 체제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었다(Cho, 2019: 27).

한편, 1990년대의 주일학교는 급변하는 한국의 사회문화 흐름에 영향을 받아 청소년 세대의 특징과 문화를 고려한 교리교육 방식을 시도하며, 교리교육과 더불어 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Cho, 2016: 231). 그러나 세속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청소년은 주일학교 보다 교회 밖의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는 주일학교의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주일학교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주일학교의 쇄신을 강조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주일학교에서 사용하는 ‘학교’라는 제도적 개념에서 벗어나 ‘신앙 전수’에 초점을 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즉, 주일학교의 목적이 지식 전달이 아니라, 청소년이 신앙의 삶을 살게 하는 데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Cho, 2005: 37). 이러한 풍토는 2000년대 이후 한국 가톨릭교회가 청소년을 신앙 교육의 대상이 아닌 복음화의 주체로 재인식하며 주일학교

운영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는 노력과 연결된다(Lee, 2023: 165). 그래서 각 본당의 주일학교는 학생 회장단을 구성하거나 청소년이 신앙학교나 성탄제 등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주일학교는 청소년의 신앙 성장뿐 아니라 그들이 다양한 삶의 기술을 배우며 전인적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론

1. 연구 절차와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16개 교구 중 A교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A교구를 선택한 이유는 A교구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자료 수집에 용이하고, 타교구에 비해 주일학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24년 3월 A교구의 청소년 사목국을 방문하고 주일학교 담당자를 만나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자료 수집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그 후, 2024년 5월 연구자가 소속된 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 승인(1040395-202405-02)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2개월 동안 총 4차례(2024년 5월 25일; 2024년 6월 1일; 2024년 6월 15일; 2024년 6월 22일)를 방문하여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위한 자료를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A교구에 소속된 12개 본당의 18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에 맞는 의도적 표집을 통하여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현재 주일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다. 이들의 경험은 주일학교 활동이 주일학교의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집단은 청소년에게 주일학교 활동을 통하여 신앙을 전수하는 교리교사이다. 주일학교 운영의 주체인 교리교사의 주일학교에 대한 가치와 그 활동에 대한 이해는 그들이 만나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집단은 주일학교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이다. 이를 통해 과거에 경험한 주일학교 활동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을 시작하기 전, 연구 참여자 모두에게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구의 취지와

<표 1> 면담 참여자의 인적 사항
 <Table 1> Interviewee Demographics

그룹	구분	본당	성별	소속
그룹 1	청소년1	본당B	여	주일학교/고2
	청소년2	본당B	남	주일학교/고2
	청소년3	본당I	남	주일학교/고1
	청소년4	본당D	남	주일학교/중3
	청소년5	본당E	여	주일학교/고3
	청소년6	본당K	여	주일학교/중2
	청소년7	본당D	남	주일학교/중1
	청소년8	본당D	남	주일학교/중3
그룹2	교리교사1	본당E	남	4년차
	교리교사2	본당F	남	2년차
	교리교사3	본당G	여	13년차
	교리교사4	본당D	여	21년차
	교리교사5	본당L	여	2년차
그룹3	청년1	본당A	여	청년회
	청년2	본당C	여	청년성서모임 대표
	청년3	본당D	남	청년 성가대 활동
	청년4	본당H	남	청년회
	청년5	본당K	여	청년회

목적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에 대한 윤리적 측면과 관련하여 면담 내용의 비밀 보장, 연구 참여 과정에서 해야 할 일, 연구 참여의 장단점, 연구의 자발적인 참여와 철회의 자유에 대하여 안내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특히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그룹1의 경우 연구 참여자의 법적 보호자에게 연구 참여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 면담은 A교구 청소년 사목국 내에 있는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면담은 개인당 40-50분 정도 지속되었으며, 면담 질문은 주일학교 활동 경험에 관한 것으로, 미리 작성된 개방형 질문지를 중심으로 반 구조화된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정확성과 완전성을 위하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였으며, 면담 종료 후 빠른 시간 내에 전사를 완료하였다.

<표 2> 면담 참여자의 면담 질문의 대표적인 예
 <Table 2> Representative examples of Interview Question from Interviewees

면담 참여자	면담질문의 대표적 예시
그룹 1 (청소년)	1. 주일학교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 주일학교 활동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3. 주일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주일학교 활동의 어떤 부분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됩니까?
그룹 2 (교리교사)	1. 청소년에게 주일학교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청소년에게 주일학교 활동을 통하여 전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3. 주일학교 활동이 청소년의 신앙과 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4. 청소년의 활발한 주일학교 활동 참여를 위하여 교리교사와 본당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룹 3 (청년)	1. 과거 주일학교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입니까? 2. 과거 주일학교 활동이 현재 나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3. 과거 주일학교 활동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4. 나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데 과거 주일학교 활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3. 자료 분석 및 신뢰도

본 연구는 다양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 중 Giorgi(1985)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 방법은 어떤 현상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Giorgi, 1985: 26). 따라서 연구 참여자와 심층 면담 과정에서 판단중지(epoche)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관한 기술에 초점을 두었다(Giorgi, 1985: 26).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면접 내용을 녹음하여 그 내용을 전사한 뒤 5단계에 걸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기술하는 상황의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자료를 3회 이상 읽는데 집중하였다. 2단계에서는 자료 전체를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청소년의 종교 활동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의미 단위들을 구별하였다. 3단계에서는 동일한 의미 단위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바뀌어가면서 의미 단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확정된 의미 단위들 간의 관계를 서로 연관 지으며, 연구 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된 의미 단위들을 확보하였다. 4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된 의미 단위들을 ‘반성과 자유 변경 과정’(Giorgi, 1985: 17)을 거쳐 일반적인 이론적 차원의 언어로 바꾸어 나갔다. 5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과정을 통해 드러난 의미 단위를 종합해서 청소년의 종교 활동 현상의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하여 기술하였다(Lee, 2023: 37-38). 이와 같은 분석 과정에서 발견한 의미를 51개

의 개념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주제와 연관성을 살펴보고 13개의 주제로 통합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주제에 대한 연역화 과정을 거쳐 총 5개의 이론화된 언어로 정리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신뢰도와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비교를 3회 이상 지속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비교는 광범위한 자료로 인해 연구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선별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Gharam, 2022: 197-198). 또한 청소년의 종교 활동 경험에 대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삼각검증법을 활용하였다. 현재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에게 종교 활동을 제공하는 교리교사, 청소년기 종교 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경험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자료의 신뢰도와 연구 분석의 균형적인 시각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Yoon, 2022: 125).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공동 연구자와 자료 분석 과정과 분석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교차 점검함으로써, 자료 분석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Gharam, 2022: 202).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가톨릭교회의 청소년 종교 활동의 중심인 주일학교 활동이 청소년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를 최종적으로 이론화한 5가지 요소 즉, “학생들을 지지하는 공동체 구성원”, “환영받는 장소”, “신앙으로 연결되는 또래 관계”, “삶에 필요한 기술 습득”, “즐기는 공간에서 신앙의 발견”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학생들을 지지하는 공동체 구성원

1) 자녀를 주일학교 활동으로 안내하는 부모님

부모님은 청소년의 주일학교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모의 신앙 생활과 자녀의 신앙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청소년의 주일학교 참여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주일학교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부모의 주일학교 활동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청소년은 부모의 관심도에 따라 주일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저는 부모님의 역할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은 빠지더라도 주일학교는 꼭 가야 했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성당을 계속 다니는 친구들은 부모

<표 3> 청소년의 주일학교 활동 경험이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
 <Table 3> An impact of Sunday School activity experience on youth life

이론화 언어	주제별 통합	추출된 의미의 예시
학생들을 지지하는 공동체 구성원	자녀를 주일학교 활동으로 안내하는 부모님	- 자녀를 주일학교로 초대하는 부모님 - 자녀들의 주일학교 활동을 지지하지 않는 학부모
	학생들 편에 서는 신부님	-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신부님 - 신앙 지식을 쉽게 설명 하는 신부님
	친구 같은, 가족 같은 교리교사	-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경청하는 교리교사 - 복음과 하느님 사랑을 전달하는 교리교사 -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교리교사
환영받는 장소	기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공간	- 나를 기억하고 반겨주는 주일학교 공동체 - 기쁨과 즐거움 재미를 주는 놀이터 같은 주일학교 - 위로 받고 안정감과 심리적 편안함을 느낌
신앙으로 연결되는 또래 관계	신앙 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일학교 친구	- 주일학교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 - 신앙생활을 기억하고 도움 주는 친구 - 신앙 활동을 함께 공감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친구를 신앙으로 초대하는 주일학교 학생	-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으로 초대하는 학생 - 신앙활동을 중단한 친구들에게 다시 초대하는 학생
삶에 필요한 기술 습득	소속감과 책임감을 길러주는 활동	- 주일학교 활동을 통하여 체험하는 뿌듯함과 보람 - 마음의 평화와, 삶을 넓게 보도록 도와 줌 -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느끼는 소속감과 책임감
	삶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공간	-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주일학교 - 인간의 유한성을 체험하며 일상을 즐기도록 도움 - 친구와 선생님의 관계 안에서 대화와 소통을 배움 - 다양성을 배우고 사회성을 기르는 공간
	다양한 활동을 경험 할 수 있는 공간	- 재미있고 즐겁게 친구들을 만나고 하느님에 대하여 배우며 추억을 쌓은 신앙학교 - 집이나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주일학교 체험 - 하느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교리교육 시간 - 기능적인 면을 배우는 학습공간으로서 주일학교
즐기는 공간에서 신앙의 발견	생애 주기에 따라 신앙 생활을 연결하는 매개체	- 유치부 교리교육에서 연결되는 중고등부 주일학교 활동과 성인의 신앙 생활 - 생애 주기별로 신앙 생활을 이어주는 주일학교
	즐기는 공간에서 신앙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 놀이 공간에서 신앙을 체험하는 공간으로의 변화 - 부모님의 이끌림에서 시작된 주일학교 활동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일학교 활동
	신앙이 삶으로 표현되도록 도와주는 역할	- 신앙 체험을 통한 신앙의 증거와 신앙의 일상화 - 몸에 배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 - 다른 친구들에 비해 높은 도덕적 기준 - 학업의 방해보다 도움이 되는 주일학교 활동 - 하느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도록 자극하는 주일학교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시간	- 주일학교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교육 시간 - 신앙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지식을 배우는 교리시간 - 교리교육의 지식을 통해 미사 의미 발견

님이 당연히 열심히 다니셨어요. 근데 안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성당을 다니지 않을꺼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그냥 알았다고 하고 끝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교리교사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한 친구가 밴드부를 하고 싶은데 학원 때문에 힘들어해서 교사가 어머니께 연락드리면 어머니께서 자신이 그만큼 더 봉사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는]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적도 있어요. (청년 4)

2) 학생들 편에 서는 신부님

청소년이 주일학교 활동을 하는 데 부모님만큼이나 영향을 주는 공동체 구성원은 주일학교 담당 사제였다. 연구에 참여한 많은 청소년이 주일학교에 참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신부님 보러 성당가요”(청소년7)라고 증언하였다. 청소년들이 언급한 사제의 역할은 성당에 오는 청소년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강론을 통한 복음 선포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다. 특히 사제의 강론은 청소년이 일상 안에서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신부님 강론 중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해야 하는 일을 나중에 해야 하지만 오늘 해야 하는 일을 미루지 않고 하면 나중에 결국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는 공부할 때 집중도 잘 안하고 딴생각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공부할 때 공부 먼저하고 노는 것 같아요. 물론 엄마도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엄마가 이야기할 때는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신부님이 하시니까 마음에 더 와닿았어요. (청소년7)

3) 친구 같은, 가족 같은 교리교사

연구에 참여한 18명 모두가 교리교사를 “친구처럼”(청소년1) 혹은 “가족처럼”(청소년8) 친근하게 여기고 있었다. 청소년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학교 선생님보다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더 가깝게”(청년2) 느끼면서 편하게 자신의 고민을 나누며 때로는 위로받거나 조언을 구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선생님들 중에 어릴 때부터 뵈던 분들은 진짜 삼촌 같고, 가족 같기도 하고,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처럼 친근하게 느껴져요. 뭐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고, 이야기도 잘 들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존재가 되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 2).

또한 청소년을 향한 교리교사의 따뜻한 환대와 관심은 청소년이 주일학교 활동에 계속 참여하도록 하며 “처음 성당 나오는 친구들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청소년 3)를 형성하기도 하고, “성당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다시 나오도록”(청소년 5)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복음과 연관하여 삶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하느님 사랑을 제시”

(청소년 5)하는 역할도 하였다. 이처럼 “즐겁고 재미있게 청소년과 함께하는 모습”(교리교사 1)으로 청소년을 만나는 교리교사의 행동은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그들도 교리교사가 되길 원하도록 안내하며, 교리교사 활동을 통해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고 있었다.

이처럼 본당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은 청소년이 주일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 담당 신부와 수도자 그리고 교리교사는 청소년보다 앞서 살아온 신앙인으로서 청소년에게 신앙의 모범이 된다. 특히,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증거는 청소년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신앙의 가치관을 설정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환영받는 장소

1) 기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공간

공동체 구성원의 환대는 청소년이 주일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력이다. 청소년은 주일학교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본당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환대나 사랑은 성당에 대한 좋은 인식과 함께 신앙 생활을 이어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어렸을 때 가정 상황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 시점에 제가 첫영성체를 준비할 때여서 성당에 자주 갈 때였어요. 그때 그렇게 가면 집에서는 뭔가 상황이 안 좋은데 성당 가면 수녀님이 좋아해 주시고, 신부님이 좋아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교리교사 3)

신앙 공동체에서 체험한 환대의 기쁨은 청소년에게 “주일학교 활동 자체가 즐거움”(청소년 6)이 되게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언젠가 성당에 갑자기 안 나오더라도 이런 즐거웠던 기억이 다시 성당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교리교사 5)이 된다. 그래서 주일학교 활동은 청소년에게 잠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쉼터”(청년 3)의 기능을 하며, “마음의 편안함”(청소년 4)과 “힘든 일이 생겨도 의지할 수 있는 곳”(청소년 6)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성당이 어떤 공간인지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학생들 대부분이 성당을 약간 쉴 수 있는 곳, 안식처 아니면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곳 아니면 또 재미있는 곳 이런 식의 답변이 많이 나왔어요. (교리교사 2)

3. 신앙으로 연결되는 또래 관계

1) 신앙 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일학교 친구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대부분은 “친구들 만나러”(청소년 6) 주일학교에 참여한다. 그들에게 ‘친구’는 주일학교를 다니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 주일학교를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그만큼 주일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는 청소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사실 밖에 친구들이랑 놀 때는 밥 먹기 전에 식사 전 기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순간 잊어 버렸던 식사 전 기도도 밥 먹기 전에 같이 하자고 한마디 던진다든지,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느님을 믿고 있었지’라는 걸 친구들한테서 배우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2)

청소년은 함께 활동하는 친구에게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통할 점이 많고 얻어가는 힘”(교리교사 2)을 얻어 주일학교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정말 습관처럼 매주 이 시간이 되면 성당을 가야지 하는데, 성당에 가면 친구들도 많고 또 이 친구들도 공부하다 오기도 하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그래서 더욱 (주일학교에) 가게 되는거 같아요. (청소년 4)

2) 친구를 신앙으로 초대하는 주일학교 학생

주일학교 활동은 청소년을 삶 안에서 신앙을 전하는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초대하였다. 또한 여러 이유로 신앙 활동을 중단한 친구들에게도 그들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하였다.

저랑 성당을 같이 다니는 친한 친구 중에 지금은 잘 나오지 않는 한명 있는데 한번씩 ‘복사 서기 싫다’, ‘학원 가야해서 성당 못나간다’ 아니면 ‘성당 가기 싫다’라고 할 때 복사단 함께하고 주일학교에서 재미있었던 추억들과 좋은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청소년 3)

주일학교 활동에 대한 또래 친구의 영향력은 청소년에게 깊은 영향을 준다. 이는 청소년이 친구를 만나러 주일학교에 온다는 의미가 가벼운 재미를 넘어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존재임을 가리킨다. 이는 주일학교 또래 친구가 청소년들의 신앙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4. 삶에 필요한 기술 습득

1) 소속감과 책임감을 길러주는 활동

청소년은 주일학교에서 학생회, 전례부, 성가대, 밴드부 등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일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부여받고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뿌듯함과 보람”(청년1)을 느꼈다. 이러한 활동에 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그들은 주일학교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교리교사가 아이들에게 에이부터 제트까지 다 해준다라기 보다 아이들 스스로 뭔가 직접 할 수 있게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청소년 미사에서 주인공은 아이들이다 해서 아이들이 직접 책임지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미사 꾸미기’라는 것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전례부터 밴드, 율동까지 아이들이 하고 싶은데로 짜도록 아이들에게 맡기고 교리교사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방향만 조금씩 잡아주는 정도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누가 시키기 보다 자기들끼리 직접 정해서 운영하게끔 했을 때 더 책임감과 흥미를 가지고 주일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거 같아요. (교리교사 3)

2) 삶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공간

주일학교 활동은 청소년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된다. 삶에 필요한 기술은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능이다. 그래서 경쟁적 삶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여러 신앙활동을 제공하는 주일학교는 “친구들이랑 서로 내어주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청소년 5)를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주일학교 활동을 통하여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종의 사회생활 같은 느낌으로 친구들과 선생님과 소통하는 법”(교리교사 2)과 “나와 다른 환경에 살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다양성”(청년 2)을 배우도록 안내하였다. 이처럼 주일학교 활동은 청소년에게 삶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배우는 곳이며 그들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죽고 또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배웠는데, 학교에서 좀 사소한 실패라든지 그런걸 겪었을 때 너무 아등바등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학교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되는거 같아요.(청소년 3)

3)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주일학교는 청소년이 “집이나 학교에서 겪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청년 2)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특히 야외활동을 활용한 교리교육은 청소년에게 “내가 믿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청년 3), 나아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자세히 알도록”(청소년 2) 도와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일 년에 한번 혹은 두 번 정도 야외 활동이나 숙박 형태로 진행되는 신앙학교에 참여했던 좋은 기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일학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 중에) 1박2일이나 2박3일 형태로 진행되는 신앙학교가 기억나요. 우리 학년 친구들만이 아닌 위 아래 선배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선후배 간에 친해지고, 그럼 그 다음 주에 성당 갔을 때 서로 더 친해져 있고, 이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캠프의 주제에 따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거 같아요.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큰 의미가 부여되는 거 같아요. (청년 4)

이처럼 청소년은 주일학교에서 마련하는 다양한 활동과 만남을 통하여 삶의 의미와 방향을 탐구하고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이는 주일학교가 청소년에게 교리 지식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지혜와 기술을 전하는 공간임을 제시한다. 이는 주일학교가 청소년이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책임감, 소속감, 건강한 소통과 관계 형성 방법 등을 습득하도록 도움을 주어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즐기는 공간에서 신앙의 발견

1) 생애 주기에 따라 신앙생활을 연결하는 매개체

청소년은 주일학교가 “신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청소년 4)에서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일부”(청소년 4)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청소년에게 주일학교는 청소년이 성장해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끔 도와주는”(청년 1)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이 성장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한 근원적인 힘이 되고 있다.

초등부 때는 강제로 나갔다고 했지만, 주일학교 활동 덕분에 중고등부도 다닐 수 있고, 중고등부를 잘 다녔기 때문에 교회 쪽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쪽으로 취직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주일학교가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청년 4)

2) 즐기는 공간에서 신앙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연구에 참여한 18명 모두 처음 주일학교를 접하게 된 계기는 부모님의 이끌림에 의한 것이거나 친구와 함께 놀기 위하여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들은 처음에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참여하였으나, “나중에는 결국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청소년 8)고 응답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주일학교 활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가 청소년이 신앙 생활을 보다 깊이 체험하며 점진적으로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반에는 의미 없이 그냥 가다가도 점점 선생님들의 신앙 체험 이야기도 듣고, 친구들이랑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하느님이 진짜 계시는게 맞나 싶다가도 점점 하느님의 존재를 믿게 된 것 같아요. (교리교사 3)

3) 신앙이 삶으로 표현되도록 도와주는 역할

청소년은 주일학교에서 배운 신앙의 내용을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일학교의 다양한 활동은 청소년에게 신앙 체험의 계기가 되고 이것은 “성당을 자발적으로 오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청소년 3)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이 일상 생활에서 하느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도록 자극한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꾸준히 나오는 청소년은 일반 학생들보다 비교적 “성실하고 도덕적 기준이 높다”(교리교사 4)고 할 수 있다.

주일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래도 종교와 관련된 것을 다니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도덕적인 기준이 좀 더 높은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장난치는 정도가 다르던가, 그래도 주일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좀 더 선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또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욕설을 자주 사용하는데, 성당 다니는 친구들 중에는 본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종교가 나쁜 쪽으로 가르치는게 없잖아요. 모든 내용이 도덕적으로 긍정적이고... 그래서 주일학교에 매주 다니면서 의식적으로 뭘 지켜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청소년 2)

이러한 점에서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은 주일학교 활동이 학업에 방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성당에 오면 미사에 참여하면서 독서도 읽고, 복음도 듣고 또 성가도 같이 따라 부르면서 스트레스가 사라질”(청소년 5)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4)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시간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8명 모두는 주일학교 활동 가운데 “재미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리교육 활동이 가장 중요”(청소년 8)하다고 응답하였다. 왜냐하면 “교리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청소년 4)이었다. 이러한 교리교육은 청소년이 미사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미사에 관한 지식을 전달할 뿐 아니라, 그들이 미사에 더욱 진지하게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예를 들어 교리교시간에 성찬례에 대해서 배웠다면 미사에서 성찬례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내

가 배웠던 것이 저거구나라고 느끼고, 미사 안에서 침묵하는 분위기와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조금 많은걸 배우는거 같아요.(청소년 6)

이와 같이 주일학교는 청소년이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청소년이 처음에 흥미와 재미로 주일학교 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이를 통해 그들은 신앙을 성찰하고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결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주일학교가 제공하는 신앙 지식은 청소년들이 살아갈 신앙의 삶에 토대가 되며, 청소년이 성장 과정 안에서 신앙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동력임을 보여준다.

V. 결론: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 시기의 주일학교 활동 경험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을 지지하는 공동체 구성원”, “환영받는 장소”, “신앙으로 연결되는 또래 관계”, “삶에 필요한 기술 습득” 그리고 “즐거이는 공간에서 신앙의 발견”으로 구성된 다섯 가지 이론화한 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청소년이 속한 가정 공동체, 본당 공동체 구성원의 환대와 지지는 청소년의 주일학교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의 신앙 생활과 자녀의 신앙에 대한 관심도는 청소년의 주일학교 참여로 이어졌다. 또한 학생들 편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신앙을 전수하는 사제의 역할은 청소년이 주일학교 활동에 어려움 없이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무엇보다 청소년이 주일학교에 쉽게 적응하게 만드는 것은 교리교사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교리교사를 학교 선생님과 달리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같으면서도 가족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래서 교리교사의 친근한 태도와 주일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노력은 청소년이 주일학교 활동에 보다 충실히 참여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주일학교 활동은 청소년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청소년은 주일학교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며 소속감과 책임감을 지니게 되었다. 주일학교 활동에서 그들이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을 때 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들이 주일학교 활동을 통해 배운 하느님의 사랑은 청소년이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안내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맺는 관계는 청소년이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며 사회성을 키우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이 부모에 의해 강제된 참여가 아니라 주일학교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

로 한 신앙 체험은 청소년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초대하고, 그들이 일상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주일학교 활동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을 성장시킬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 생활을 이어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교리교육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은 주일학교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공통적으로 ‘교리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들은 교리교육이 비록 재미없고 지루함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데 도움이 되며, 신앙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교리교육을 통해 배운 미사의 의미는 청소년이 더욱 집중해서 미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근원이 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이 미사 참여를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며 신앙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움을 주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일학교는 청소년에게 기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며 신앙을 발견하게 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논의와 시사점에 대하여 연구 질문에 따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톨릭교회의 주일학교 활동 경험이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청소년의 신앙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 가톨릭교회 주일학교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는 청소년 주일학교의 참여율을 목격하며 주일학교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였다(Cho, 2016: 231). 이는 학교 형태로 유지되는 주일학교 체제의 한계와 함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종교활동에서 이탈하여 세속적인 삶에서 의미를 찾자 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청소년이 여전히 주일학교 활동을 통하여 신앙을 체험하고 일상 생활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살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주일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교리교육과 전례 및 성사 생활이 청소년의 신앙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Yang, 2023: 86). 실제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활동한 내용은 삶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거나, 인간관계, 소통, 다양한 활동 경험 등 삶에 실제적인 기술을 익히는 데 직·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다. 주일학교의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은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이나 교리교사처럼 성인이 된 후에도 신앙 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연결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 시기의 주일학교 활동은 청소년들이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익히며, 성숙한 그리스도 신앙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Cho, 2014: 170).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시기의 종교 활동 경험은 청소년의 삶이 신앙과 연결되어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성당을 다니지 않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일학교 활동 시간과 겹침에도 주일학교를 선택하는 청소년의 태도에서 주일학교의 활동이 그들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일학교 활동은 학업을 방해하는 학업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의 일상적인 삶을 정화하고 그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일학교 활동에서 배우는 소통하는 법, 관계 맺는 법, 도덕적 규범, 복음의 가치는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기술과 올바른 가치를 습득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에게 사회적 종교적 가치를 전달하며 청소년이 도덕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일학교 활동은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종교 활동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Koo, 2009: 331).

둘째, 가톨릭교회의 주일학교 활동 경험은 청소년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연구 결과 주일학교 활동 경험은 청소년이 성장해서도 신앙 생활을 이어가는 동력이 되었다. 비록 청소년이 부모의 권유나 또래 모임 등의 이유로 주일학교에 처음 참여하였더라도, 주일학교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과 프로그램은 주일학교가 그들의 삶의 일부로 발전하도록 도와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 사제, 수도자, 교리교사 등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구성원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환대는 그들이 주일학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청소년이 주일학교 활동을 통해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삶 안에서 구현할 수 있게 만드는 토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앙 생활에 중요성과 가치를 전하는 교리교육과 전례 행위 등의 신앙 활동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는 청소년이 도덕에 기반한 신앙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Koo, 2009: 332). 이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앙 생활이 자신의 일상과 통합하여 살아가는 연결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은 주일학교 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하느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계획을 깨닫고 이를 통해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Francis, 2019: 151). 그래서 주일학교는 청소년이 자신의 성소를 발견하고 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Sala, 2017: 218).

그러므로 주일학교의 토양인 본당 공동체의 적극적인 동반은 청소년의 종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은 청소년에게 설득력 있고 영향력 있는 신앙의 증인이 되기 때문이다(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New Evangelization, 2020: 165-166). 공동체 구성원의 환대와 사랑은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신앙 공동체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기반이 된다. 가정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의 삶은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배경이 되며, 본당 사제와 수도자는 청소년이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청소년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보여주는 교리교사의 관심은 청소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그들은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함께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법을 배워 나갔다. 결국, 주일학교 공동체 구성원은 청소년이 자신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신앙 안에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여정을 동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쁨과 일관성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사제, 수도자, 교리교사 그리고

부모의 동반은 어른들의 진실성에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의 신앙 성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New Evangelization, 2020: 166). 이러한 점에서 주일학교 공동체는 청소년의 삶에 깊이 관여하며 서로에게 삶을 개방하도록 동반할 것을 요구 받는다(Sala 2017: 222).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은 청소년의 삶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교리교육과 강론을 통해 복음을 체험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전례 행위를 통하여 하느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역할은 청소년이 신앙을 삶 안에서 실천하게 하며, 그들이 궁극적으로 신앙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본질적인 힘이 되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의 삶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동반은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며 신앙적 가치를 삶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시기의 주일학교 활동 경험이 청소년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은 주일학교 활동을 통하여 신앙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성장한다. 특히 주일학교 공동체는 청소년의 신앙의 삶을 살도록 길을 안내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가톨릭교회 청소년 활동의 중심인 주일학교는 청소년이 그들의 일상적 삶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신앙적이며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공동체 중심의 종교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 기반의 종교 활동을 통해 형성된 신앙적 감수성은 청소년의 삶의 기준이 되어 교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이룩하는데 공헌(Francis, 2019: 28, 103)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References

- Cho, B. (2014). Development and Faith Education of Adolescents. *Theological Perspective*, 185, 166-201.
- Creswell, J. W. & Poth, C. N..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옮김 (2021).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Dario, D. G. (2011). *La Pastorale dei Giovani: Uno studio sul magistero di Giovanni Paolo II*, Città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Translated in English) Dario, D. G. (2011). *Youth Ministry: Study of the teachings of Pope John Paul II*. Città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 Francis, P. Christus Vivit,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옮김 (2019).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Kim, M. K. & Lee, H. J. (2014). The Effect of Spiritual Maturity and Religious Orienta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Catholic Youth.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 22(2), 383-400.
- Koo, B. M. (2009). The relational moral virtues of Catechesis. *Journal of Human Studies*, 17, 7-38.
- Lee, J. S. & Jeong, D. (2017). Social Religios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77(2), 95-128.
- Lee, N. I. (2019).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for Reviewers of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e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20(1), 1-14.
- Oh, H. S. & Moon, H. Y. (2020). *A Study on Changing Youth Values of Generation Z*.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Pontificio Concilio promozione per la Nuova Evangelizzazione (2020). Direttorio per la Catechesi, Città Vaticana: Editrice Vaticano. (Translated in English) Pontificio Concilio promozione per la Nuova Evangelizzazione (2020) *Directory for Catechesis*, Vatican city: Editrice Vaaticana.
- Sala, R. (2017). Pastorale Giovanile 1: Evangelizzazione e Educazione dei Giovani, Rome: LAS (Translated in English) Sala, R. (2017) *Youth Ministry 1: Evangelization and Education of Young People*. Rome: LAS.
- Shin, D. Y. & Park M. S., & Kim, Y. G. (2018). Meaning of Everyday Life and Religious Life of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11), 395-417.
- Yang, W. J. (2023). The Role of Sunday School and Catechist. *Journal of Catholic Youth Education and Ministry*, 3, 82-110.
- Yoon, M. K. (2022).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ducational Behaviors and Impacts of the Don Bosco School Community Approach on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School Maladjust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0(2), 89-119.